

“5·18 가치, 전 세계에 전하고 싶어”

오페라 ‘박하사탕’ 작곡가 겸 예술감독 이건용

영화 ‘박하사탕’ 원작...80년 5월 배경 한 남자의 인생 담아

2019년 광주 무대 이후 8월 27~28일 서울 국립극장 공연



이건용 예술감독

“나 다시 돌아갈래”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박하사탕’ (2000)에서 주인공 영호는 기차가 달려오는 철도 위에 서서 절규한다. 영호의 절규는 기차의 기적소리를 뚫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사울 전 봄, 94년 여름, 87년 봄, 84년 가을, 80년 봄 그리고 마지막 79년 가을까지.

개봉 후 20년이 흐른 지난해, 영화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오페라로 새롭게 탄생했고, 오는 8월27~28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오페라 ‘박하사탕’은 1980년 5월 광주, 공수부대원으로 투입된 한 남자의 파멸과 사랑에 관한 내용이다. 주인공의 인생과 사랑을 통해 당시 상황과 5·18을 겪은 광주시민을 투영, 한국 현대사를 담아내며 2막7장이었던 작품은 이번에 2막6장으로 조정됐다.

작품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 최근 오페라 ‘박하사탕’ 이건용 예술감독을 만나 5·18에 대한 단상, 오페라 제작배경, 특징 등을 들어봤다.

서울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및 총장을 역임하고 세종문화회관 서양음악단 예술총감독, 제5대 서울시오페라단 단장 등으로 활동한 그는 “대구 효성여대 교단에 서던 당시는 잊을 수가 없다”며 입을 뗐다.

“대구에서 5·18 소식을 들었어요. 경악을 금치 못했고, 큰 충격에 빠졌죠. 하지만 당시에는 5·18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 ‘살풀이 80’ 등 몇 곡을 쓰긴 했는데 5·18을 제대로 소화하기에는 무리였어요.”

1983년부터는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학생운동이 치열하던 때라 최후탄 가스로 인해 눈물을 흘리지 않고 출근한 날이 없었다던 그는 1985년 합창곡 ‘분노의 시’를 쓰면서 문득 ‘음악으로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학생들이 수업 중에도 잡혀가는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중간고사를 치르던 학생들이 강의실을 박차고 달려나가기도 했죠. 그 광경을 보고는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음악으로 뭘 할 수 있나’ 하는 고민이 많았어요.”

이러한 고민을 시작으로 그는 작곡그룹 ‘제3세대’ 활동을 하면서 시인의 입을 빌려 현실을 이야기했고, 여러 과정을 거쳐

그만의 음악세계가 형성됐다. 그 중심엔 ‘광주’가 있었다.

이 씨는 “항상 마음속에 광주에 대한 부채감이 있었다”며 “언젠간 꼭 ‘광주’를 이야기하는 작품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1998년 그는 광주를 주제로 한 오페라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제목은 ‘오월의 신부’. 원작자인 황지우 작가, 김석만 연출가와 답사 차 광주를 찾기도 했다. 작품은 무대에 올려졌지만 결국 여러가지 이유로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2019년 그 당시 광주시립오페라단 정갑균 예술감독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5·18 40주년을 맞아 오페라를 함께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 씨는 두말 없이 승낙했다. 정 감독과 이 씨 그리고 조광화 작가 세명은 강풀의 만화 ‘26년’,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 등 여러가지 소재를 찾으며 고민했다. 그러던 중 영화 ‘박하사탕’을 발견했고, 이를 원작으로 오페라 ‘박하사탕’을 제작했다.

원작의 특징인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서사 구조를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음악극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연출상의 고민이 따랐을 것.

작품 제작에 어려움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주인공 김영호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에 대해 고민을 많이했다”고 답했다.

“영화는 주인공 한명이 작품을 이끌어가지만 오페라에는 주인공을 비롯해 주먹밥을 만드는 어머니들, 전라도 사투리를 걸쭉하게 쓰는 화순댁, 김영호와 결혼한 홍자 등 다양한 주변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영화, 소설 등 80년 5월의 광주를 다룬 다른 작품들과 달리 오페라는 여러 인물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작품에서는 ‘망월동의 노래’, ‘안녕 시간야’, ‘우리는 공수’ 등 이 씨가 작곡한 아리아와 영화에 없는 옛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장면 그리고 광주를 상징하는 주먹밥, 시민군 등에 대한 서사 등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이 씨는 마지막으로 오페라 ‘박하사탕’이 광주에 뿌리내리기를 바란다고 광주 시민들의 인정과 사랑을 넘어 전 세계로 나아가 5·18의 가치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빛고을이 아들의 세력과 부딪혀 싸운 광주의 이야기는 이제 보편적인 스토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죠. 특히 오늘날 5·18과 같은 일을 겪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격동의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만한 아름다운 역사를 가진 도시가 많이 없잖아요. 자랑해야지요. 힘 닿는데까지 세계에 널리 알릴 생각입니다.” (웃음)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열고 있는 ‘흐르는 시간, 그리고 전

흐르는 물결, 그리고 반사된 빛

8월 10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캔버스 속에 담긴 푸른바다, 그 바다와 어우러진 변화무쌍한 하늘, 고요한 수면 위로 반짝이는 햇살, 냇가 물 속에 숨겨진 조약돌 찾기...

광주신세계갤러리는 해마다 불멸더위에 지친 이들에게 휴식을 전하는 ‘아트바캉스’전을 열어왔다. 오는 8월10일까지 열리는 올해 전시 ‘흐르는 시간, 그리고 전’은 ‘물’과 ‘바다’의 이미지를 주제로 작업한 작품들을 만나는 전시다. 흐르는 물결과 그에 반사된 빛 등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이번 전시에는 김덕용·김연수·민준기·박일구·허연화 등 5명의 작가를 초대했다.

독특한 재료인 자개와 나무로 ‘바다’를 펼쳐낸 김덕용 작가는 “나무는 숲의 바람 소리를 그리워하고 자개는 바다의 운슬에 대한 향수를 지니고 있다. 이들이 지니고 있는 귀소 본능은 나의 기억의 공간인 안방과 마루에 비치는 따뜻한 빛이 돼 스며든다”고 말한다. ‘자개-귀소’는 자개가 만들어진 환상적인 바다 모습이 쉽게 잊히질 않는 작품이다.

사진작가 박일구는 일몰과 일출이 펼쳐지기 전 바다에서 만나는 오묘한 색감을 사각의 프레임에 담았다. ‘The south Sea’ 시리즈는 한반도 남쪽바다를 추상화한 연작으로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의 색이 만들어내는 관조의 바다가 관람객들 사색에 빠지게 한다.

활발한 붓터치로 풍경을 담은 김연수 작가의 ‘물을 닮은 하늘’ 등의 작품은 바람이 만들어낸 물의 주름과 하늘의 색, 물의 색을 포착한 작품으로 몽환적 분위기가 풍긴다.

또 바다 풍경을 프린트한 한지를 찢어 캔버스에 옮긴 민준기 작가의 ‘당신이 서 있는 곳’에 등장하는 바다 풍경은 다시 돌아오고픈 과거의 기억들과 다시 만나고 싶은 이들에 대한 추억이 담긴 ‘생각의 조각’들이다.

허연화 작가는 어릴 적 추억이 담긴 할머니 집 앞 하천에서 만난 기억들을 다채로운 유화 작품으로 풀어냈으며 조약돌 등을 형상화한 설치 작품도 함께 배치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지난해 광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오페라 ‘박하사탕’이 오는 8월27~28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열린다.

드영미술관 ‘패밀리 아트캉스’ 회원 모집

무등산 자락 드영미술관(관장 김도영)이 가족소통 미술체험 프로그램 ‘패밀리 아트캉스’ 회원을 모집한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홍은표·고마음 작가의 작업을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패밀리 아트캉스’는 아이들의 창의력을 높이고 육아와 사회생활로 지친 부모들의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기획이다.

‘2021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으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8월 21일부터 10월2일까지 6개의 강좌로 진행되며 1기와 2기로 나눠 운영된다. 1기는

‘거품 자화상 만들기’ (8월21일), ‘노린 펜지 꽃 풍선 열기구 만들기’ (8월28일), ‘바다 캔들 만들기’ (9월4일)로 진행되며 2기는 ‘플루이드 아트’ (9월11일), ‘버킷 복권 만들기’ (9월25일), ‘자개 드림캐쳐 만들기’ (10월2일)로 구성돼 있다.

강의는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 저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열리며 지난 16일 시작된 참가자 모집은 오는 9월 11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가수 당 15명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62-223-6515. /김미은 기자 mekim@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Beltone

2015~2019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소비자만족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한 혁신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